

전남 과일·채소 산지 유통 판매 소비자에 통했다

농협 전남본부 연합사업단, 1~3월 매출 1031억원·27% 증가 매출 1위 품목은 딸기 155억, 시·군별로는 순천 오이 110억 등 코로나 19 여파로 수출액 11% 감소...과실류 39%·채소 5.3% ↓

전남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산지 유통과 판매를 일원화하는 연합사업단의 올해 1분기(1~3월) 매출이 전년보다 27.1%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0.8% 감소했다. 1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법인 연합사업 매출은 10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 949억원보다 8.6%(82억원)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딸기 매출이 155억원으로 전체의 15.0%를 차지했고, 배 120억원, 오이 115억원, 양파 93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사업은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농협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원예조공법인과 광역연합을 포함한 18개 연합사업단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강진·곡성·광양·담양·보성·영광·영암·장성·장흥·진도·해남·화순 등 12개 지역 연합사업단과 나주·목포·신안·무안·순천·함평지역이 참여한 원예조공법인 5개와 광역연합인 '전남농협 원예유통사업단'이 있다. 올해 실적을 시·군별로 보면 대표 품목이 각기 다르다. 연합사업 매출 1위 품목은 순천에서는 오이가

110억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나주 배 90억7100만원, 광양 호박 56억5200만원, 영암 고구마 42억2700만원, 진도 대파 42억700만원, 함평 양파 41억3000만원, 해남 고구마 27억1000만원, 목포·신안 양파 25억9300만원, 영광 양파 16억6400만원, 무안 대파 11억2100만원, 강진 토마토 2억2900만원 순으로 매출이 많았다. 시·군에서 매출 1위에 다수 꼽힌 품목은 딸기로, 담양 56억9300만원, 장성 29억3300만원, 보성 27억5100만원, 곡성 22억2000만원, 화순 10억5000만원, 장흥 6억8500만원 등 실적을 올렸다. 지역농협과 전남본부, 각 시·군이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올 1분기 연합사업 매출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수출실적은 '두 자릿수' 감소를 면치 못했다. 올 1~3월 연합사업 수출액은 575만7000달러(65억원)로, 1년 전 645만2000달러보다 10.8%(-69만5000달러) 감소했다.

전남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을 포함해 채소류·과실류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은 과실류다. 1분기 동안 과실류 수출액은 155만9000달러로, 전년(255만9000달러)보다 39.1%(-100만달러) 감소했다. 채소류 수출액은 5.3%(-9만3000달러) 감소한 165만3000달러, 버섯류는 57.4%(-12만2000달러) 줄어든 9만달러를 기록했다. 곡류 역시 전년보다 57.4%(-5만2000달러) 감소한 3만9000달러 상단이 해외로 나갔다. 반면 광양농협이 백합목 수선화와 알스트로메리아를 일본으로 5만3000달러 상당 수출하는 낭보를 전하기도 했다. 가공식품(28.4% ↑)과 수산물(27.6%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늘어나 총 수출액은 23억6300만달러로 집계됐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남농산물 판매 강화와 산지유통 혁신을 위

한 연합사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남 농산물 판매 주역인 시군연합사업 조직 전문 마케터 30여 명이 참석해 2분기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우수 사업조직의 마케팅 및 조직화 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연합사업은 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농협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2개 연합사업단과 5개 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 지난해 3729억원을 취급해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 목표는 3800억원으로 세웠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의 연합사업 조직이 책임지는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합사업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영산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오른쪽 두번째)와 (사)고향주부모임전남도지회(회장 김남생)는 지난 8일 무안군 문탄면 영산강 유역에서 영산강지킴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은 올해 전남도 환경 분야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전남농협이 후원한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정기총회를 열고 복구 한 감자 농가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 하고 일손도 돕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는 지난 8일 복구 광주농협 소속 농가에서 '2021년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면 결의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결성한 '희망드림봉사단'은 감자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을 보탤다. 또 지역사회 나눔활동과 농촌 활력에 기여한 농가주부모임 광주비야농협분

회(분회장 나정임), 하남농협분회(분회장 손안순)가 우수조직상을, 동곡농협분회(분회장 홍순희), 임곡농협분회(분회장 오다경)는 우수분회상을 수상했다. 장세득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장은 "이번 농촌일손돕기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안전하고 맛있는 전남 김치·돼지고기 밥상에 올리세요"

농협 전남본부, 건강한 밥상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국산 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구내 식당에서 펼쳤다. 전남본부는 최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 구내 식당에서 '국산김치! 우리 민족의 힘 건강한 밥상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급식은 국산 김치와 함께 소비가 위촉된 국내산 돼지 앞·뒷다리로 만든 수육과 돈가스, 전남산 바나나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발효식품인 김치는 면역력 강화 효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김치(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규격에 채택되고 중국산 김치의 비

위생적인 제조과정이 고발되는 등 악재를 만났다. 농협 전남본부는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국산김치를 홍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소속 화원농협, 순천농협, 여수농협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김치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영암 200가구에 축산물 꾸러미 전달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영암군에 200여 가구를 위한 축산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펼쳐진 '희망으로 하나되는 축산물 사랑 나눔행사'에는 (사)나눔축산운동본부와 영암축협, 농협 영암군지부가 함께 했다. 마련된 축산물 꾸러미는 한돈 400kg과 달걀 6000알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나눔축산운동은 범 축산인이 펼치는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봄철 환절기에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축산물로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